

‘중일 갈등’ 연예계 확산…팬미팅 취소·방송출연 반대까지

日 JO1 中행사 취소…日선 에스파 중국인 멤버 논란

‘中활동’ 日연예인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선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깊어지는 중일 갈등이 연예계로까지 급격히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실상의 ‘한일령’ (限日令)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대(對)일본 보복 조치로 여행업계와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양국의 대중문화 영역에서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홍콩 일간 성도일보와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음원플랫폼 QQ뮤직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 보이그룹인 JO1 (제이오원)의 광저우 팬 파티(팬미팅) 행사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8일 광저우 ICC 환마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QQ뮤직 측은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VIP 멤버 전용 이벤트도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JO1은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을 통해 2020년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으로 CJ ENM과 요시모토흥업이 한일합작으로 설립한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중국에서 일본 아이돌의 공식 행사가 취소된 데 이어 일본에서는 한국 걸그룹의 중국인 멤버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인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앞서 닝닝은 2022년 소셜미디어에 원자폭탄 폭발 직후 생기는 ‘버섯구름’과 유사한 형태의 조명을 공개하면서 일본에서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중일 갈등 심화 속 당사 논란이 소환되면서 그의 홍백가합전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HNK 측에 제기됐다.

청원에는 홍백가합전이 일본의 중요한 공식 행사이며, 역사의식이 부족한 언행을 용인하면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원폭 피해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전날 오후 기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에스파가 최근 중일 외교 긴장 국면의 최대 피해자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성도 일보는 전했다.

또 12월31일 방영이 예정된 홍백가합전에 에스파가 예정대로 무대에 설 수 있을지가 중일 관계의 긴장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고 성도일보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일본 연예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본토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일본 가수 메이리아(MARiA)는 지난 18일 웨이보에 “중

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며 중국 친구들은 모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일본 배우 야노 코지는 “중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일 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이 인식하게 해준 곳”이라며 “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영원히 지지하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밝혔다.

야노 코지는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일본 군 장교로 출연한 적 있다.

일본 연예인들의 잇단 선언은 지난해 대만 연예인들이 중국 본토의 여론 압박 속 ‘하나의 중국’을 외쳤던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이 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해당 언사에 대한 고강도 비난을 넘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강경한 조치 등을 잇달아 내놨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 15-17일 사흘간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이 49만1천건 취소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전했다.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중국 개봉을 앞둔 일본 수입 영화들의 상영이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전세계적으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도 중국에서 개봉 사흘만에 사실상 ‘불매’ 수준의 위기를 맞았다.

아울러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양국 교류 단절까지 예고되면서 대치 국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일본 남서부 오이타현 오이타에서 170채가 넘는 건물을 태운 대형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日오이타현 시가지서 대형 화재…170채 이상 불타

“최근 20년간 피해 건물수 최대 화재”

일본 규슈 오이타현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진화되지 않아 19일 현재까지 건물 170채 이상을 태웠다.

교통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이타현 오이타시 사가노세키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전까지도 꺼지지 않고 번져 주택 등 170채 이상과 주변 산림을 태웠다.

화재 피해 면적은 16만㎡를 넘고 있다.

이 화재로 최대 180명이 이재자가 개설한 대피소로 이동했고, 70대가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경찰이 확인 중이다. 50대 여성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또 약 270가구가 정전 상태다.

오이타시는 자위대에 소방 지원을 위한 파견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다.

아사히신문은 “소방청 통계로 최근 20년간 발생한 시가지 화재 중 피해 건물 수가 2012년 12월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의 147채를 넘어 최

다”라고 전했다. 화재가 발생한 마을에는 17일 아침부터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현지 소방서는 18일 오후 5시45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연합뉴스

클림트 말년작 3천400억 낙찰…현대미술품 최고가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말년에 그린 초상화가 경매에서 현대미술품 중 최고 낙찰가 기록을 세웠다.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저녁 미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리의 초상’(사진)이 수수료 포함 2억3천3천400만달러(3천400억 원)에 낙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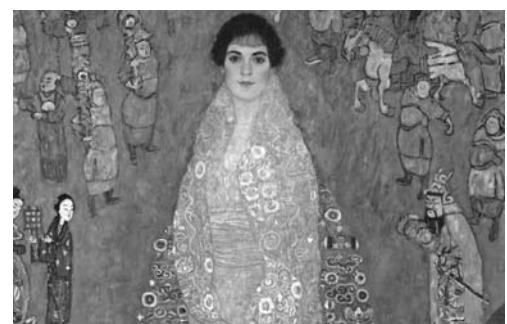
현대미술품으로는 최고가다. 역대 최고가는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천300만달러(6천600억 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가 세웠다.

클림트 작품의 최고 경매가도 경신했다. 지금까지는 2023년 세워진 1억800만달러(1천580억 원)가 최고가였다.

20분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어진 응찰 경쟁을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내 낙찰이 결정되자 현장에서 탄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소더비는 낙찰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레더리의 초상’은 클림트가 1914년에서 1916년 사이 후원자의 20세 딸을 그린 작품이다. 클림트의 작품 중 전신 초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두 점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이름을 따 화장품 회사를 세운 에스티 로더의 아들 레너드 로더의 뉴욕 자택에 약 40년간 걸려 있었다. 그러다 레너드 로더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초상화를 비롯해 그가 평생 수집한 예술품이 대거 경매에 나왔다. /연합뉴스

이, 레바논 공습…“팔 난민촌 13명 숨져”

가자지구 휴전 이후 레바논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18일(현지시간) 레바논 내 최대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습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레바논 보건부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 NNA 등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 외곽에 있는 예인 엘-힐웨 난민 캠프 내 주차장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준비하던 난민촌 내 하마스 훈련 시설을 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하마스는 난민촌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